

목포 평화광장 조성 12년 관리는 혼선 시설은 노후

목포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12년이 경과되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평화광장은 연중 3일에 한 번 꽂을 각종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주민들이 즐겨 찾는 균형공원으로 삶의 질 제고에 한 뜻을 하고 있다. 반면 노점상과 각종 놀이기구로 인해 민원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곳 가운데 하나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열악한 매점·화장실 등 개보수 시급 노점·놀이기구 영업 양성화도 필요

◇ 평화광장 관리부서 혼선=평화광장 관리는 목포시청 8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관리 부서를 대폭 축소하거나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평화광장 무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관리와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한다. 또 광장 내 녹지 공간은 공원과에서, 음악 분수와 데크는 관광사업과, 도로변 가로수와 수벽은 경관사업과, 교통 통제는 교통행정과가 맡고 있다. 여기에 화장실은 환경과, 매점 2개소는 회계과 소관 업무로 돼 있다.

◇ 평화광장 시설개선 시급=지난 1999년 조성된 이후 12년이나 돼 화장실과 매점 등 일부 시설이 매우 열악해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시는 응력을 의회에 ▲오전(6~9시) ▲오후(1~4시) 두 차

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밤에 더 많아 청소 시간대를 늦은 시간으로 늦추거나 1회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화장실이 비좁고 시설도 낙후돼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평화광장 주변 상인들은 화장실과 붙어있는 매점을 없애고 화장실의 규모를 확대해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목포 시민들에게 평화광장은 도심 속 '숨숨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 노점상이 늘고 각종 놀이기구들이 즐비하고 사행성 게임까지 등장한다. 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평화광장에는 자전거, 전동 오토바이, 인라인 스케이트 등 각종 놀이기구 상인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평소엔 이들이 평화광장

의 3분의 1을 지배할 정도로 많다. 이를 상인들은 중소기업 뺨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의회와 지역민들은 차라리 근절이 안 될 바에야 목포시 세원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놀이기구 영업권을 입찰에 부쳐 운영자를 선정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아울러 세원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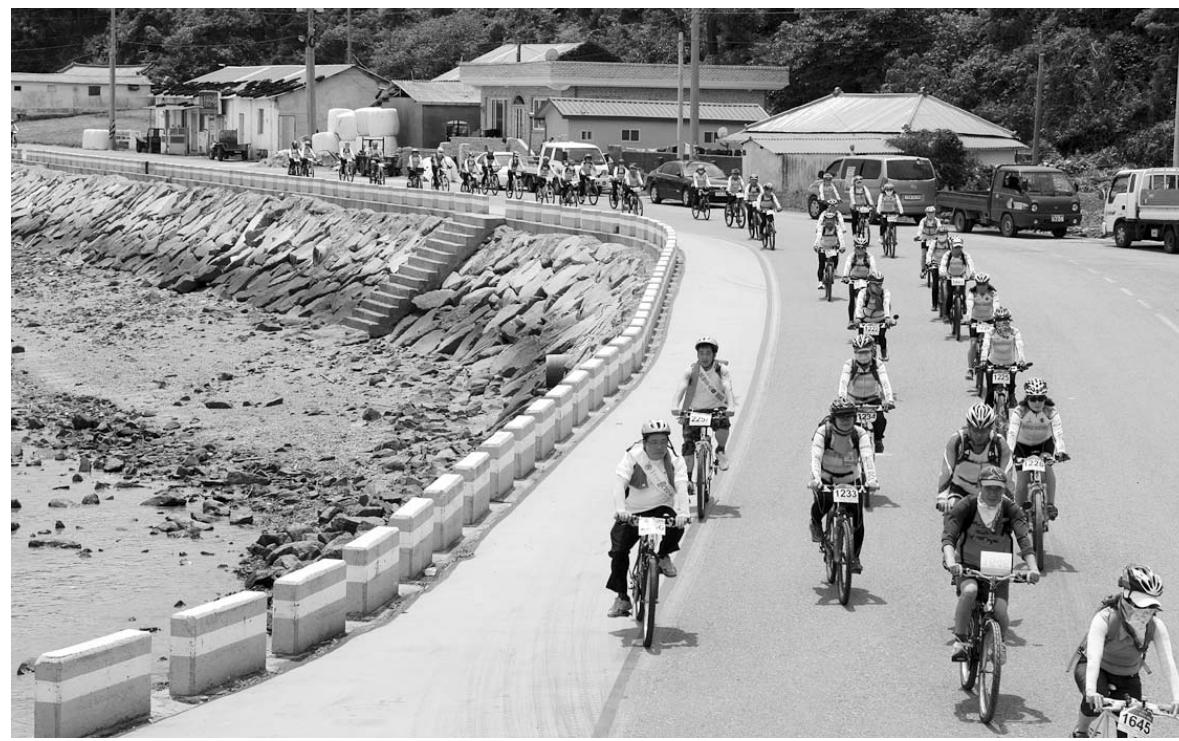
◇ 성숙한 시민의식 절차=평화광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실제로 평화광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목포 하당에는 변변한 시민 휴식 공간이나 공원 하나 없는 현실에서 서 어찌 보면 '평화광장은 큰 자산'이며, '평화광장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질문에 공감을 표했다.

정영수 시의원은 "평화광장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목포시민들의 손실"이라며 "민·관 모두가 평화광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76개

/서부취재본부=고구석 기자 yousou@



두바퀴로 즐기는 어촌체험 지난 11일 열린 '제1회 해안선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과 장흥 군민 등 1000여명이 장흥 회진항~관산 사금 어촌체험마을을 있는 해안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타기와 개매기 등 어촌체험 관광을 연계해 진행됐다. (장흥군 제공)

장흥 해조류·황칠소재산업

온 지역연고 육성사업 선정

전남도는 지역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에 '장흥 해조류사업'과 '황칠소재산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이나 연고자원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생산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생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등을 통해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최대 6년간 국비 36억원이 지원된다.

'황칠소재산업'은 전남 서남권 지역이 전국 황칠나루 생산지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건강

사업 중 전남에서는 '친환경 축산식 품 생산·유통시스템 강화사업' 등 7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황칠' 등이 추가됐다.

'장흥 해조류'사업은 전국 생산량 86.6%를 차지하는 장흥 무산 김, 매생이, 꼬시래기 등 해조류를 원료생산부터 가공제품 개발, 유통 등까지 다루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황칠소재산업'은 전남 서남권 지역이 전국 황칠나루 생산지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규명, 항노화·항주름 등 미용 제품 생산, 고지혈증·당뇨·비만 등 고기능성 식품개발과 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두 사업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총사업 43곳, 매출액 2385억원, 수출 340억원, 고용창출 1180여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시작된 7개 RIS사업을 통해 터려 52건, 기술이전 16건, 애로기술 해소 623건, 고용창출 463명, 매출 2862억원, 창업지원 82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김동현 전남도 경제산업국장은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해 부진한 곳은 국·도비 지원액을 삭감하고 사업 성과가 높은 사업은 국·도비 증액, 마케팅지원, 수출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 설치된 '춤추는 분수'.

전남 농기원 원예연구소

방울토마토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종자수입 대체효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새로운 흑색 방울토마토가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지난해 '헤이' 품종에 이어 최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흑색 방울토마토 신품종을 육성했다. 흑색토마토는 베타카로틴(β-carotene)과 라이코펜(lycopene), 비타민 C 등을 일반토마토보다 1.4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동안 흑색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 종자업체의 독점점 형태로 공급되는 종자를 일반 토마토로



도 가격보다 5배 정도 비싼 50~80만원(1000립 기준)에 구입해 재배해 왔다.

이번 신품종 육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토마토를 제공하고, 재배 농가에게는 생산비 절감과 종자수입 대체효과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 농기원 원예연구소

방울토마토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종자수입 대체효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새로운 흑색 방울토마토가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지난해 '헤이' 품종에 이어 최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흑색 방울토마토 신품종을 육성했다. 흑색토마토는 베타카로틴(β-carotene)과 라이코펜(lycopene), 비타민 C 등을 일반토마토보다 1.4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동안 흑색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 종자업체의 독점점 형태로 공급되는 종자를 일반 토마토로

도 가격보다 5배 정도 비싼 50~80만원(1000립 기준)에 구입해 재배해 왔다.

이번 신품종 육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토마토를 제공하고, 재배 농가에게는 생산비 절감과 종자수입 대체효과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여관

> 대지 7867평 > 건물 2510평

> 김포기적 126억원

> 매매가격 90억원(협의후결정)

광주옥동 공동 허미스포렉스

> 대지 4073평

>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 김포기적 516억원

> 매매가격 160억원(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 대지 925평 > 건물 597평

> 김포기적 99억4천원

> 매매가격 55억원(협의후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해남 땅볼풀도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 김포기적 83억원

> 매매가격 35억원(협의후결정)

곡성석석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김포기적 449억3천원

> 매매가격 20억원(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김포기적 135억원

> 매매가격 85억원(협의후결정)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증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 유동화 지산매각은 유통회사와 유입부동산이나 경매관련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줍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길잡이공인증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 유동화 지산매각은 유통회사와 유입부동산이나 경매관련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줍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시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